

38 여성의 날 맞이 문화제 “발”

구성인(초)

비단

수신: 38 집행국동지들

발신: 문화제 기획주체 결의자

부제2장, 12월

전체는 뼈째와 사회자와의 대화로 진행된다.

■OPENING

밝은 분위기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쉬운 문선
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

—새내기문선

환영사, 성신 총학생회장

—뼈째주제가; 뼈째와의 대화를 시작한다.

뼈째&사회자

■1부 여성과 몸

문화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들 어둡지만, 1부는 절대 어둡지 않게 밝고 신나는... 여성의 몸은 즐거울 수 있다!
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/반성폭력 등등

(퍼포1(5))

문선1(3)

뼈째&사회자

여운단위 발언(3); 반성폭력을 중심으로 - 연세1, 숭실2, 관공3

뼈째&사회자

노래공연1(5) → 관공연1(5)

■2부 여성과 일

전체노동자의 70%비정규직 노동자, 그 속에 70%여성노동자. 가사노동까지 이중부담되고 있는 현실

노동이 권리가 아니라 이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. 똑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,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빼앗겨야 하는 현실, 조금은 어둡게 시작해서 끝에는 결의로 끝날 수 있게

영상1(3)

학생단위발언(3); 여대생취업, 청년실업을 중심으로

문선2(3) → 관공연(5)(연세1, 숭실2, 관공3)

뼈째&사회자

연대단위 발언(3)

초청가수1/소풍가는 날 → 관공연1(5) (연세1, 숭실2, 관공3)

① 1부 페포1
② 2부 노래공연1
③ 3부 연대발언1
→ 4부 초청가수1

■3부 여성과 가족

가족은 여성에게 어떤 공간인가? 재생산 공간이라고 이야기 하는데, 무엇의 재생산인가? 여성은 과연 자기자신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가? 가족이 여성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...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,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 보통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끝은 그 속에서 잘 해봐라로 끝나는데... 일부러 해피엔딩으로 맷튼하지..., 진지하게 가족이라는 공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, 그래도 문화제 끝이니까 신나게 끝나야...

영상2-만화(3)

문선3(3) → 관공연(5)(연세1, 숭실2, 관공3) → 관공연1(5)(?)

뼈째&사회자

엄마와의 전화통화-집단퍼포(3)

무언가... (자녀에게는 할 수 있는지 → 관공연1(5))

초청가수2/이자람 or 이상은

■ 3·8 여성의 날 민중운동 여성단위와의 간담회

1. 의의 및 목표

- 신자유주의 하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,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공격 속에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차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작업의 초벌적 작업
- 민중운동 내 여성주의적 고민을 펼쳐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일계기로 삼는다.
- 또한 1단위 1연대에 있어 유의미한 거점으로 사고하고 있으며,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운동을 벌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.

2 참가 단위

3·8 여성의 날 기획단,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, 시그네틱스 노조 등

3. 일시 및 장소(가)

3월 3일 서울대학교

~~3/3~~ 3~4 (제1차)

4. 일정

2월 마지막 주 - 각 노조 미팅 및 간담회 관련사항 확정

3월 첫째 주 - 간담회 진행(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의 삶에 관련한)

3월 8일 - 각 노조단위와의 연대투쟁(기획 중), 3월 8일 문화제에 연대발언 섭외.

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,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, 서울대학교 간호대학
시그네틱스

■ 3·8 여성의 날 광장 기획안

1. 일시 및 장소

일시: 3월 6일 1시

장소: 마로니에 공원, 혹은 인사동 거리(3안으로 명동 한빛은행 앞)

2. 다른단체 일정들

무지개포럼(6일 3시), 무지개시위(7일 4시 반, 마로니에)

민주노총 3·8 여성의 날 투쟁(6일 2시, 장소는 마로니에 아니면 종묘)

한국여성단체협의회

여성영화제

3. 광장 기조

3·8 기획단 기조와 발맞춰 감.

3·8 - 8년 전쟁, 민족대통일, 평화, 사랑

4. 기획

- 거리전: 현재 실업문제 및 빈곤 문제와 관련한 스티커 설문, 현재 여성실업 및 반성폭력에 관련한 현황들을 자보 및 거리전화
- 가판 선전: 3·8 패 배포 및 3·8 여성문화제 홍보
- 약식 집회: 앰프 등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나갈 수 있는 계기로
- 퍼포먼스: 성신의 '종이공주 이야기' 등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,
- 선전전: 광장 전체를 커버하면서, 구호 및 유인물, 풍선 배포, 앰프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.
- 이후 다시 모여 간단한 정리집회 후 타 단위 일정에 결합할 것에 대한 고민 중.

5. 준비할 것들

- 거리전: A자 게시판, 각 단위에 이야기해서 실업문제 및 빈곤문제, 그리고 반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거리전 준비
- 가판: 책상과 의자. 안 되면 책상이라도 앰프나 확성기라도 준비.
- 약식 집회: 각 단위별로 투쟁과제 등을 담은 피켓 준비.
- 퍼포먼스: 성신여대 등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서.
- 선전전: 가판에서 풍선 배포, 유인물은 정책국에서 담당, 앰프 등 준비.
- 타 단위 일정을 파악해야 함. 집회 신고서도 준비.(투쟁국에서)